

초록번호 : III-1-3

제 목	국 문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혈압 관련 행태에 대한 조사연구		
	영 문	A Survey on the Health Related Behavior of Hypertension in Rural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강영호 ¹⁾ , 이건설 ²⁾ , 김창엽 ¹⁾ , 임준 ³⁾ , 이해국 ³⁾ , 최용준 ³⁾ , 이경호 ³⁾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¹⁾ ,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²⁾ , 대한공중보건학협회의회 ³⁾		
	영 문	Khang Young-Ho ¹⁾ , Lee Kun-Sei ²⁾ , Kim Chang-Yup ¹⁾ , Im Jun ³⁾ , Lee Hae-Kook ³⁾ , Choi Yong-Jun ³⁾ , Lee Kyung-Ho ³⁾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¹⁾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u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octor ³⁾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강 영 호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목적</p> <p>전국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혈압과 관련된 의료이용행태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농어촌지역의 고혈압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고혈압 관리사업의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p> <p>2. 연구방법</p> <p>가.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로써 제주도 포함 전국의 58개 보건지소 인근 자연부락의 총 8,164명이었으며, 이들 중 5,52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67.65%의 조사율을 나타내었다.</p> <p>나. 조사방법 대한공중보건학협회가 주관한 '농어촌지역 고혈압 유병률 조사 및 관리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통해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58명의 공중보</p>				

건의사가 진료보조원과 보건요원에게 설문조사 방법을 교육시킨 후 이들에 의해 사전에 고안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공중보건학사가 2회의 혈압측정을 하는 중간에 이뤄졌으며, 설문조사결과는 공중보건학사에 의해 검토된 후 코딩지침에 따라 공중보건학사가 직접 입력하였다.

3. 연구결과

조사참여자의 73.97%가 최근 1년간 혈압을 측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혈압측정 경험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지난 1년간 혈압측정횟수는 평균 3.71회(SD : 6.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혈압측정횟수가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67$), 고혈압(JNC-5기준 Stage I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혈압을 측정한 경험이 많았고($p=0.0001$), 측정횟수도 고혈압을 가진 사람은 연평균 5.91회,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은 2.52회로 차이를 보였다($p=0.0001$).

가장 최근에 혈압을 측정한 기관으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당시 우연히 측정한 경우가 가장 많아 72.46%를 차지하였고, 마을을 방문한 의사나 보건요원에 의해 측정한 경우가 13.13%에 이르고 있다.

전체의 21.91%에서 '예전에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많았으며($p=0.001$), 지역의 위치별로는 섬보다는 내륙일수록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6$).

혈압이 높다는 말은 들은 사람 중 52.89%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에게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혈압약을 복용하는 있는 사람의 52.4%는 '처방받은 대로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혈압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주일에 5일 이상 복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8.7%에 달했다. 한편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89.10%가 혈압약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에게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혈압관리를 위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JNC-5 기준상 정상범위내로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61.97%로 나타났다.

4. 고찰

고혈압은 매우 높은 유병률을 지닌 질병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통하여 이로 인한 치명률 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자신이 질병을 인지하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는 등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치료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고혈압인 환자 중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혈압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이러한 경향을 막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